

따뜻한 축복

우리 인민들에게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위민헌신의 불멸할 려정을 새겨볼수록 뜨겁게 안겨오는 모습이 있다.

2024년 4월 16일 웅장화려하게 솟아난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장에 나오시여 몸소 준공테프를 끊으시던 자애로운 아버지의 모습이다.

화성지구 2단계 구역을 현대미를 자랑하는 특색있는 거리로 일떠세울 대건설작전을 펼쳐주시고 몸소 착공의 발과단추를 누르시였을뿐 아니라 완공을 앞둔 시기에 또다시 건설장을 찾으시여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게 마무리 공정까지 완벽하게 결속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정녕 이 땅우에 새로 일떠서는 새 거리들은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것만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열화의 진정이 낳은 위민헌신의 응결체이다.

이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불과 세해사이에 3만세대가 훨씬 넘는 현대적인 살림집을 일떠세운 미더운 수도건설자들이 앞으로도 순결한 애국충성과 혁명적기개로 당 제 8차대회가 제시한 수도건설 5개년계획의 다음단계 목표들을 계속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수도 평양을 명실공히 강국 조선의 위상에 어울리는 세계적인 문명도시로 전변시키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사로운 4월에 림흥거리의 새 살림집을 받아안은 모든 가정들에 행복이 깃들기를 충심으로 기원하시며 따뜻이 축복해주시였다.

이렇듯 자애롭고 위대한 아버지의 다심한 사랑속에 우리 인민이 안겨산다.

하기에 궁궐같은 새집들에 보금자리를 편 평범한 근로자들은 이렇게 웨치고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따뜻한 축복이 차넘치는 집에서 자기들이 살고 있다고.

이것은 비단 화성지구에서만 울려퍼지는 걱정의 목소리가 아니다.

도시와 농장마을과 두메산촌에 이르기까지 이 땅 그 어디에서나 이런 진정의 토로가 울려퍼지고있다.

그렇다. 자애로운 아버지의 축복, 정녕 그 따듯한 사랑과 은정이야말로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이 세상 그 어떤 재부와도 비길수 없는 제일 큰 재부가 아니라.